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김 동 진 민 법

## 공인노무사 기본이론강의

최소한의 투자 & 안정적인 목표점수의 확보

### 강 의 계 획 서

#### 01.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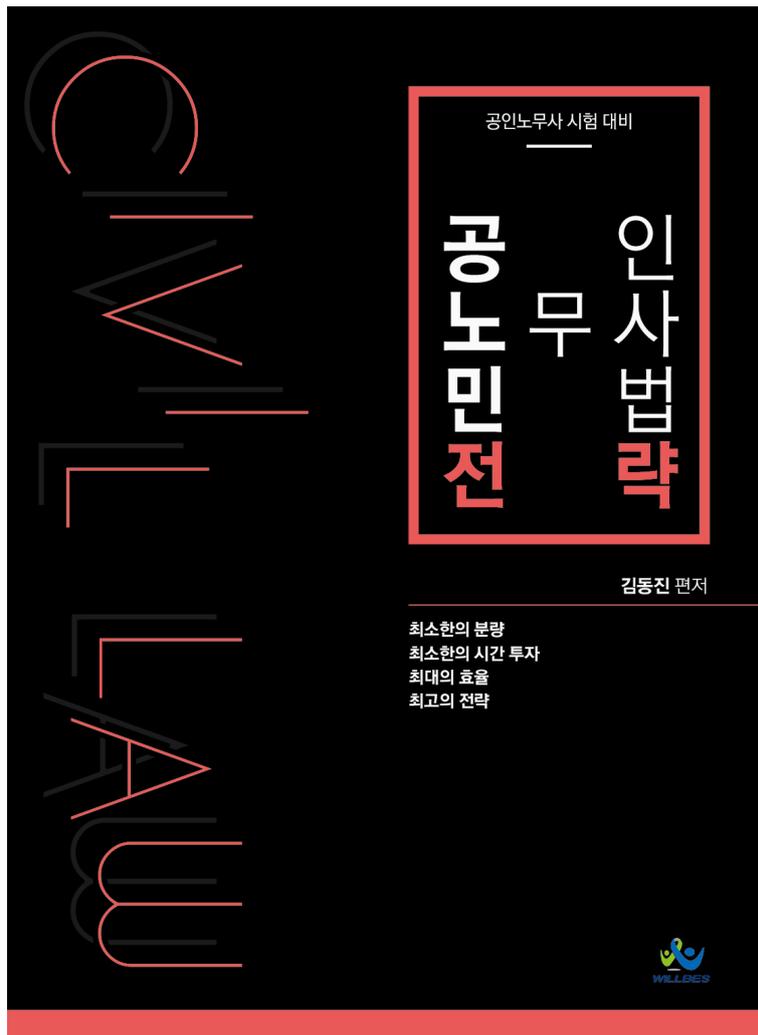
6/14(월) ~ 7/14(수), 총 23회, 동영상강의로만 진행

#### 02. 교재

공인노무사민법전략 제1판(공노민전략, 김동진 편저)

#### 03. 기타

필기노트 PDF 파일 제공



## [1] 연습

물론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민법을 완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기본강의 단계에서의 연습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본강의를 시작점으로 하여 민법 공부를 처음하는 분들께서는 연습 보다는 **수업 시간과 복습**에 더욱 집중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면, 민법을 공부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는 하루에 15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 [2] 수업 시간

### 1.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강의를 듣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하루 분량(3강)만큼만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 2.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의 구별

민법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민법의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어느 부분은 암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스스로 혼자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해당 내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강사의 역할입니다. 강의 시간에 이해해야 할 부분들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설명을 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수강생 분들도 제가 간단히 암기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알려주면 간단히 "공노민 전략" 교재 해당 부분에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 3. 밑줄

- 밑줄로 책을 정리하는 이유는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 다시 "공노민 전략"을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밑줄 위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앞과 뒤의 내용을 읽으면 됩니다.
- 강의시간에 판서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공노민 전략"에 밑줄을 알려 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수업시간에 밑줄을 하라고 하는 것만 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밑줄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강의 과정에서의 밑줄은 가급적 샤프나 연필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내용 등을 색상이 있는 펜으로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4. 필 기

수업시간에 제가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필기노트가 PDF파일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강생 분들이 스스로 노트 필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첫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필기까지 하면 민법 내용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지고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 둘째, 필기노트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 혼자 민법 공부를 할 때에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누군가 대신 작성한 필기노트 보다 자필로 작성한 필기노트가 눈에 더 잘들어옵니다.
- 셋째,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위한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글”은 계속 작성 연습을 해야 합니다. 1차 공부를 하면서 필기노트 작성 등을 꾸준히 하다보면, 스스로 요약하는 방법이나 도식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복 습

-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민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 중 민법 기본강의를 듣는 기간동안 만큼은 오로지 민법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법 기본강의를 듣는 기간 동안은 다른 과목과 병행하지 마시고 민법만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차적으로 당일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누적적 복습을 권해드립니다. “누적적 복습”이란, 예를 들어 오늘 4회차 강의를 들었다면, 1회차부터 4회차 진도 나간 부분까지 밑줄 위주로 빠르게 속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범위는 민법총칙 / 채권법을 나누면 됩니다. 즉, 민법총칙 부분을 계속적으로 누적 복습을 하다가 채권법으로 넘어가면 채권법 부분을 계속적으로 누적 복습을 하면 됩니다.
- 만약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민법 기본강의 기간 동안 다른 과목도 병행해야 한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당일 학습한 내용의 복습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위 누적적 복습까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 [4] 진도표

아래 진도표는 실제 진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공노민 전략

1회	민법서론(3면) ~ 신의칙(20면)
2회	권리의 주체(21면) ~ 미성년자(29면)
3회	피성년후견인(30면) ~ 실종선고(43면)
4회	법인(44면) ~ 감사(55면)
5회	사원총회(56면) ~ 원물과 과실(74면)
6회	권리의 변동(75면) ~ 이중매매(88면)
7회	불공정한 법률행위(88면)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2면)
8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02면) ~ 현명주의(115면)
9회	대리행위의 하자(115면) ~ 무권대리(128면)
10회	무효(129면) ~ 취소(142면)
11회	법률행위의 부관(143면) ~ 소멸시효의 기산점(157면)
12회	소멸시효의 기산점(157면) ~ 제척기간(179면)

- 채권법 진도는 추후 공지

## [5] 마무리

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단 한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민법 기본강의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제가 제시하는 길을 잘 따라온다면, 민법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카페 “공인노무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 공방”(공노민 공방)으로 방문하셔서 질문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배상